

### 화관·정병·구고로 시작된 인연

원로조각가 최종태 명예교수가 회고한 법정 스님



서울 김장사의 아주 특별한 관음보살상을 조각한 원로조각가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사진 왼쪽)가 최근 에세이집 <산다는 것 그린다>(바오로딸 펴냄)를 펴냈다.

2000년 4월 봉안된 이 관음보살상은 성모마리아를 닮아 조성 당시부터 이슈였다. 전통적인 관음도상에 모더니티를 더한 작품은 봉안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간 상생의 아이콘을 넘어 우리 시대의 관용과 어른스러운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최 명예교수는 한국 종교미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1958년 가톨릭에 입교했지만 서울대 미대 졸업 후 3개월간 불교 교리를 배웠다.

최종태 명예교수는 "1960년대 중반 반가사유상에서 한국의 조각가로서 추구해야 할 평생의 길을 찾았다. 내 신앙은 가톨릭이지만 원천은 불교였다"고 말했다.

책에서 최 명예교수는 법정 스님이 서울 연남동 작업실을 찾아와 관음상을 만들었다라고 부락했던 당시를 회고해 적었다. "관음보살상이 머리에 쓴 관이 무엇입니까?"

"화관(花冠)입니다." "손에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정병(淨瓶)." "손바닥이 이쪽에서 보이도록 만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고(救苦)." "최종태 명예교수는 "나도 짧게 몰랐지만 스님은 의미답으로 알려줬다. '꽃관·정화수·세상의 고통을 구한다'는 세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작품은 다 잡혔다"고 말했다.



## 조계종 신도는 혜택이 칼칼

### 중앙신도회 신도멤버십센터 신도회 교육관에 문열어

조계종 신도들이 전문기관에서 신도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8월 31일 중앙신도회 교육관에서 신도멤버십센터를 개소하고 신도등록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도멤버십 사업은 2009년 4월 포교원에서 신행생활 공동체를 모드로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신도등록을 통해 다양한 신행정보를 얻고, 보내는 신행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신도멤버십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도회관에 멤버십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신도멤버십 사업은 그간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들에 한해 문화재 보수사업, 템플스테이, 동국대병원 등에서 혜택이 이뤄졌다.

센터장을 맡은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은 "핵심신도 100만 양성을 위해 이뤄진 신도멤버십 제도의 활용이 한층 적극적으로 시행돼 왔다. 앞으로 멤버십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혜택과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중앙신도회가 중앙신도회관 3층에 신도멤버십센터를 개소했다.

"멤버십센터 및 전국 본사의 가맹점 장려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신도들이 종단멤버십 신도증을 통해 신앙생활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신도멤버십에 대한 가맹점을 확대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표를 두고 앞으로 본사 및 교구신도회에 연계한 조직화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국 불자생산자를 포함한 가맹점 확보(주요소, 음식점, 리조트, 소품, 관광, 불교용품점, 사회적기업 등) 및 제휴가맹점 인증서 배포와 홍보안

내자료 비치 >신도멤버십 사용 장려캠페인 실시 >가맹점 마케팅 실시 >신도 조직 간담회를 통한 가맹점 모집 실시 >문화재사찰 및 지역사찰 방문 스티커 부착 및 신도멤버십 상담 >가맹점 매장 확대 및 지속적 홍보 >신도멤버십 역량 강화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신도회 측은 "멤버십가맹점 이용을 위해서 신도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해 신도회원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종교 내 여성권익에 남성 역할 중요"

남윤인순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종교 내 가부장적 태도에 여성 종교인들이 다소 무관심해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선각자적 뜻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前 상임대표(사진)는 종교 내 여권 신장의 중요성과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미래사회포럼은 8월 30일 템플스테이회관 3층에서 남윤 前 대표를 초청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사실적 고찰'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남윤 前 대표는 강연 후 법안 스님이 교리상의 한계와 무관심 속에 외면 받고 있는 종교 내 여성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여성 종교인들이 무관심하더라도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윤 前 대표는 "종교연구가 많기 때문에 종교 내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많



다. 우선은 사안별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남윤 前 대표는 우리나라의 성차별 현주소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 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설명했다. 또한 여성운동의 미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남윤 前 대표는 "여성주의 가치의 재정립과 새로운 정치담론과 세력으로서 미디어, 정치, 가치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불교발전이 더 힘써 달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사진 앞줄 가운데)가 8월 29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구니장학회는 >동국대 대학원 도문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도영 스님 >영남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선 스님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은정 기자

## 불교여성이 불교증흥에 앞장선다

###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광장 건립 불사 입재식' 봉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과 (사)지혜로운여성이 불교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일환으로 '불교여성광장'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부회장 일장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여성광장 건립 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은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직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소통할 전용공간이 없다"며 2020년 개원을 목표로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날 김애주 원장은 "600만 여성 불자들의 뜻을 받들어 불교여성광

장기 불사가 여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껏 여성 불자의 전용 공간이 없는 것은 수치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 일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심일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인종과 문명을 뛰어넘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불교여성개발원이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여성광장은 바로 이런 세계 평화와 인류의 정신적 진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관장 혜송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이 '불교여성광장'을 마련하면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다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불보살님의 원력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앞서, 2012년에 불교여성개발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처장은 "전용 교육장이 마련되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만 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구좌 100만원 씩 100억 원의 기금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5일 오후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마련 문화제: 불교르네상스의 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청춘의 고민 토크파티로 날린다

문수 스님의 유지를 잇는 청년 인문학 강좌 '2011 청춘토크파티'가 9월 22-29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동국대 등에서 열린다.

'청춘 토크파티'는 강사와 청중이 따로 없는 형식으로 초청 강사가 30분 정도 강연을 펼친 뒤 청중들이 10개의 테이블에 10명씩 앉아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대화 내용은 추후 20대가 말하는 정책요구로 발표될 예정이다.

광고 디렉터 박운현·오마이뉴

스 오연호 대표(22일, 서울 시립대),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배우 김여진(27일, 동덕여대),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정연주 KBS 前 사장(29일, 동국대)이 각각 이번 청춘토크파티의 강사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주최하고, KCY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20대 파티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연합동아리 대학희망 동국대사회과학대학회 등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02)2011-1820 박기범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창,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1년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 지난 28년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해 온 "DX-707 마이크"를 사용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 "DX-707 명품 마이크"는 40대 만을 추가 제작을 끝으로 부처님전에 다시는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남은 자재가 다 되었기 때문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라지는 "名品 DX-707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구입해, 소장을 원하시는 스님 35분의 주문을 받습니다  
세상에 단 한번밖에 없을  
DX-707 마이크를 구입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주문방법 : ① 입금 후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를 Fax, 전화, 등으로 알려주세요
  - ② 입금 순서대로 발송 해드립니다
  - ③ 스님 35분까만 공급 해드립니다
- 송금 우리은행 구 좌 :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대 금 : 2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